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운



키움증권

미 증시는 미 10년물 금리 급등, AI 속도조절 불안 등으로 약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4일(월) 미국 증시는 9월 FOMC 금리인상 전망 강화에 따른 미 10년물 금리 장중 5.0% 돌파, AI 속도조절 우려에서 기인한 마이크론(-5.2%), 엔비디아(-3.4%) 등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약세(다우 -0.3%, S&P500 -0.5%, 나스닥 -0.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9%).

전일 미 10년물 금리가 5.0%를 돌파하면서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재료. 그러나 이날 미국 증시가 장 초반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한 채 마감했다는 점은 1) 기존부터 5.0% 돌파 가능성은 열어 두었던 가운데, 2) 연준의 연속적인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베팅이 증시의 하단을 지지했음을 시사.

실제로 9월 8~10일에 시행된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1회~2회에 그칠 것이라고 답변한 비중은 83%였으며, 새로운 인상 사이클 시작이라고 본 비중은 17%에 불과했음. 이제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사안은 5.0% 돌파 자체보다 현재 레벨에서 추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주가 멀티플 디레이팅을 초래할 지 그 여부임.

이를 고려 시 9월 FOMC에서 연준이 25bp 인상 이후 인플레이 대응 의지를 확인시켜주면서도, 추가 인상엔 신중한 입장을 제시하는지를 주시할 필요. 이 경우, 미국 장기물 시장 금리는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반영해가면서 상승 압력이 진정될 것으로 보이며 증시 전반에 걸친 디레이팅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10년물 금리 5.0% 도달을 증시 추세 훼손 신호로 해석하기 보다는 주 후반에 예정된 9월 FOMC에서의 시장금리 안정 여부를 확인하고서 포지션 조정에 나서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 8월 CPI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속 AI 속도조절 불안 심리가 중첩된 여파로 반도체, 전력기기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급락 마감(코스피 -3.3%, 코스닥 -1.7%).

금일에는 미 10년물 금리 5.0% 돌파 및 미국 반도체주 급락 부담에도, 전일 국내 증시 선반영 인식 속 미국 증시 장중 낙폭 축소 소식 등에 힘입어 전일의 급락분을 만회해 나갈 전망.

현재 국내외 반도체주는 AI 속도조절 불안으로 인해 또 한 차례 검증대에 놓인 상황. 7월에는 AI 투자 사이클 둔화가 주가 하방 압력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매도세를 자극하고 있는 실정. 시장이 AI 산업 성장성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려티브에 노이즈가 개입된 상황 속에서 9월 FOMC 불확실성까지 맞물리다 보니, 약재에 대한 민감도를 키우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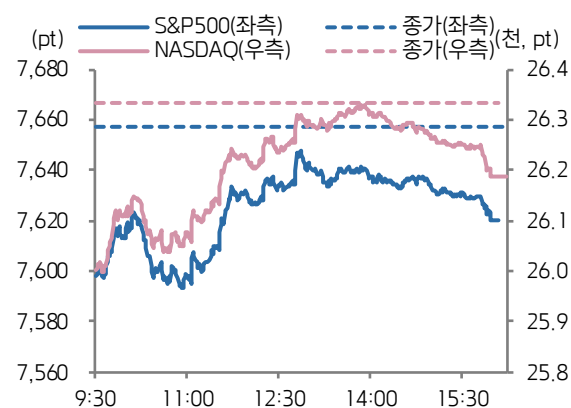
물론 최근에는 상반기에 비해 반도체 쓸림과 독주 현상이 덜해진 측면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8월 이후 코스피가 회복세를 연출하는 등 이전보다 반도체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임. 하지만 반도체가 여전히 주도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결국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의 약 75%,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54%를 차지하는 반도체 주가 향방은 반도체 비중이 낮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도외시하기 어려운 변수임. 우선 이번 주 내내 AI 규제와 안전성 관련 뉴스플로우가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반도체의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높일 소지가 있기는 함.

다만, AI 개발을 중단하는 것도 아니며, 설령 업체 차원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행되더라도, 중기적으로 정부의 규제 압력이 낮아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 더욱이 AI 투자 축소 혹은 메모리 수요 둔화 신호는 등장하지 않았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월말 마이크론 실적, 혹은 10월 말 빅테크 실적 시즌까지 가야할 것으로 판단. 반도체 포함 코스피의 이익 전망에 별 다른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지로(9월 이후 12개월 영업이익 컨센서스 +3.2% vs 9월 코스피 수익률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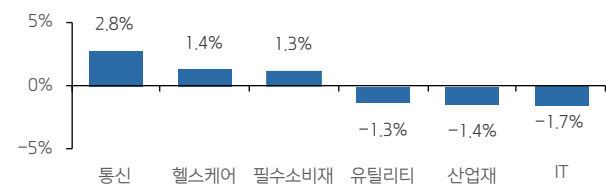
이를 감안 시, 금일 혹은 이번주 중 AI 속도조절 이슈로 변동성이 높아지더라도, 추격 매도 대응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현 시점에서는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코스피, 반도체에 비해 베타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수익 방어력을 제공했던 은행, 보험, 지주 등 주주환원 업종으로 일부 비중을 분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전망(최근 3거래일 코스피 -5.2% vs 은행 +5.0%, 보험 +2.0%, 지주 +1.1%).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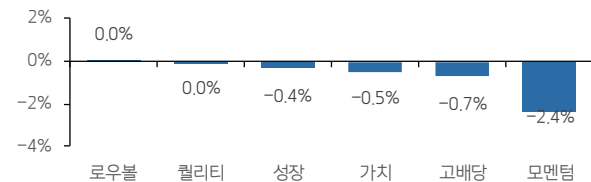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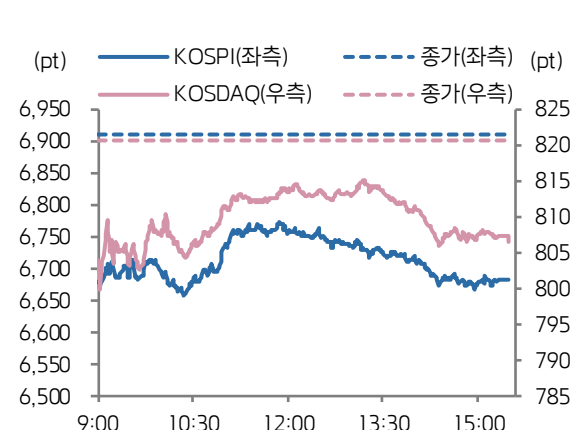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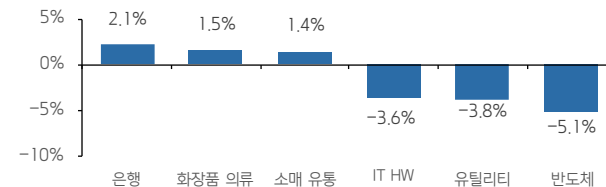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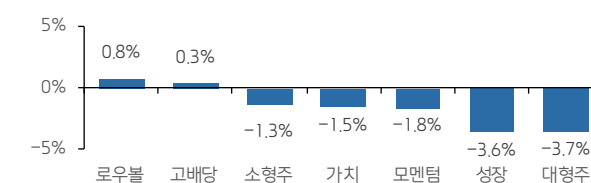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33.08	+0.24%	+22.52%	GM	87.16	+1.8%	+7.18%
마이크로소프트	505.41	+1.97%	+4.51%	일라이릴리	1,138.28	+2.02%	+5.92%
알파벳	349.39	+3.22%	+11.63%	월마트	109.08	+1.8%	-2.09%
메타	665.60	+2.71%	+0.83%	JP모건	350.13	-1.71%	+8.66%
아마존	253.54	-1.26%	+9.84%	엑손모빌	165.08	-0.55%	+37.18%
테슬라	358.97	-1.77%	-20.18%	세브론	212.17	-0.88%	+39.21%
엔비디아	210.96	-3.36%	+13.12%	제너럴일렉트릭	109.08	+1.8%	-2.1%
브로드컴	344.72	-4.77%	-0.4%	캐터필러	784.00	-4.22%	+36.85%
AMD	493.41	-4.4%	+130.39%	보잉	210.27	-0.09%	-3.15%
마이크론	924.03	-5.25%	+223.76%	넥스트에라	81.63	-0.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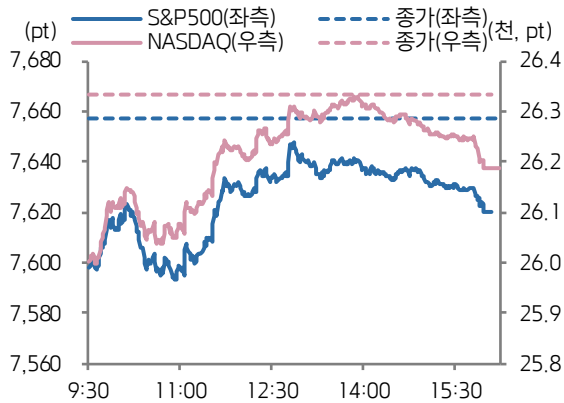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684.37	-3.26%	+58.62%	USD/KRW	1,347.20	+0.34%	-6.41%
코스피200	1,050.83	-3.61%	+73.41%	달러 지수	99.46	+0.34%	+1.16%
코스닥	806.79	-1.69%	-12.82%	EUR/USD	1.15	-0.43%	-1.68%
코스닥150	1,369.05	-2.15%	-11.52%	USD/CNH	6.71	+0.02%	-3.82%
S&P500	7,619.98	-0.48%	+11.31%	USD/JPY	154.35	+0.48%	-1.51%
NASDAQ	26,186.41	-0.56%	+12.67%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52,421.20	-0.29%	+9.07%	국고채 3년	4.021	+0.1bp	+107bp
VIX	17.10	+7.95%	+14.38%	국고채 10년	4.530	-1.2bp	+114.5bp
러셀2000	2,892.24	-0.4%	+16.53%	미국 국채 2년	4.658	+3.2bp	+118.5bp
필라. 반도체	11,131.28	-5.86%	+57.15%	미국 국채 10년	4.988	+2.1bp	+82.1bp
다우 운송	20,729.79	+0.49%	+19.43%	미국 국채 30년	5.345	-0.8bp	+50.1bp
상해종합	3,885.33	-0.07%	-2.1%	독일 국채 10년	3.518	+1.4bp	+66.3bp
항생 H	8,284.58	+0.46%	-7.06%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4,781.76	-0.16%	-12.25%	WTI	101.39	+1.34%	+78.03%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105.68	+1.02%	+73.67%
Eurostoxx50	6,260.38	-1.02%	+8.1%	금	4,351.90	-1.29%	-3.24%
MSCI 전세계 지수	1,135.77	-0.65%	+11.94%	은	63.51	-1.61%	-10.04%
MSCI DM 지수	4,910.28	-0.55%	+10.83%	구리	633.00	-2.16%	+11.4%
MSCI EM 지수	1,697.85	-1.38%	+20.9%	BDI	3,507.00	-0.4%	+86.84%
MSCI 한국 ETF	176.22	-6.62%	+81.26%	옥수수	533.25	+0.57%	+15.8%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722.00	-0.45%	+27.84%
비트코인	79,084.76	+2.28%	-9.77%	대두	1,304.25	+0.6%	+22.52%
이더리움	2,570.45	+2.32%	-13.68%	커피	290.50	+1.68%	-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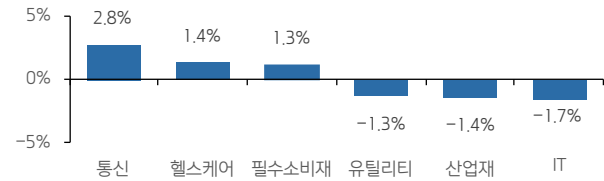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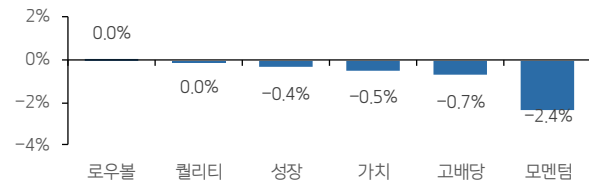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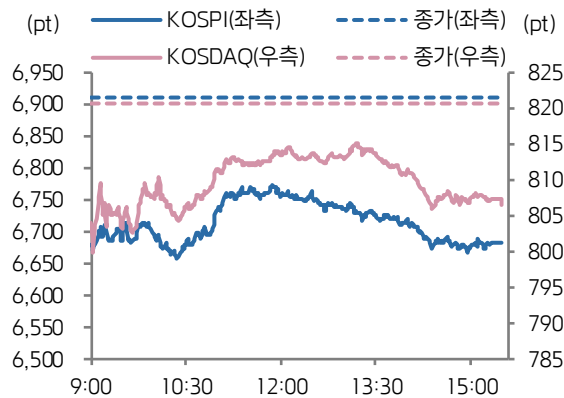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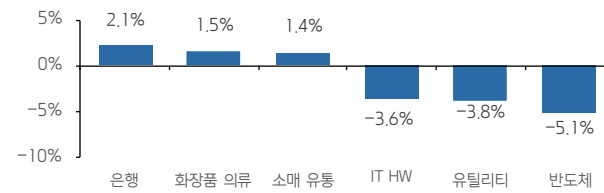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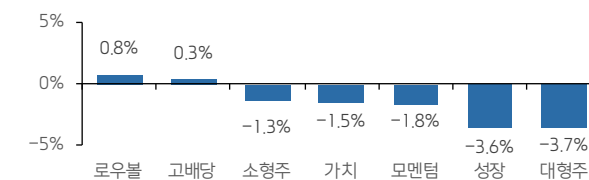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33.08	+0.24%	+22.52%	GM	87.16	+1.8%	+7.18%
마이크로소프트	505.41	+1.97%	+4.51%	일라이릴리	1,138.28	+2.02%	+5.92%
알파벳	349.39	+3.22%	+11.63%	월마트	109.08	+1.8%	-2.09%
메타	665.60	+2.71%	+0.83%	JP모건	350.13	-1.71%	+8.66%
아마존	253.54	-1.26%	+9.84%	엑손모빌	165.08	-0.55%	+37.18%
테슬라	358.97	-1.77%	-20.18%	세브론	212.17	-0.88%	+39.21%
엔비디아	210.96	-3.36%	+13.12%	제너럴일렉트릭	109.08	+1.8%	-2.1%
브로드컴	344.72	-4.77%	-0.4%	캐터필러	784.00	-4.22%	+36.85%
AMD	493.41	-4.4%	+130.39%	보잉	210.27	-0.09%	-3.15%
마이크론	924.03	-5.25%	+223.76%	넥스트에라	81.63	-0.8%	+1.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684.37	-3.26%	+58.62%	USD/KRW	1,347.20	+0.34%	-6.41%
코스피200	1,050.83	-3.61%	+73.41%	달러 지수	99.46	+0.34%	+1.16%
코스닥	806.79	-1.69%	-12.82%	EUR/USD	1.15	-0.43%	-1.68%
코스닥150	1,369.05	-2.15%	-11.52%	USD/CNH	6.71	+0.02%	-3.82%
S&P500	7,619.98	-0.48%	+11.31%	USD/JPY	154.35	+0.48%	-1.51%
NASDAQ	26,186.41	-0.56%	+12.67%	채권시장			
다우	52,421.20	-0.29%	+9.07%	국고채 3년	가격	DTD(bp)	YTD(bp)
VIX	17.10	+7.95%	+14.38%	국고채 10년	4.530	-1.2bp	+114.5bp
러셀2000	2,892.24	-0.4%	+16.53%	미국 국채 2년	4.658	+3.2bp	+118.5bp
필라. 반도체	11,131.28	-5.86%	+57.15%	미국 국채 10년	4.988	+2.1bp	+82.1bp
다우 운송	20,729.79	+0.49%	+19.43%	미국 국채 30년	5.345	-0.8bp	+50.1bp
상해종합	3,885.33	-0.07%	-2.1%	독일 국채 10년	3.518	+1.4bp	+66.3bp
항생 H	8,284.58	+0.46%	-7.06%	원자재 시장			
인도 SENSEX	74,781.76	-0.16%	-12.25%	WTI	가격	DTD(%)	YTD(%)
유럽, ETFs				브렌트유	105.68	+1.02%	+73.67%
Eurostoxx50	6,260.38	-1.02%	+8.1%	금	4,351.90	-1.29%	-3.24%
MSCI 전세계 지수	1,135.77	-0.65%	+11.94%	은	63.51	-1.61%	-10.04%
MSCI DM 지수	4,910.28	-0.55%	+10.83%	구리	633.00	-2.16%	+11.4%
MSCI EM 지수	1,697.85	-1.38%	+20.9%	BDI	3,507.00	-0.4%	+86.84%
MSCI 한국 ETF	176.22	-6.62%	+81.26%	옥수수	533.25	+0.57%	+15.8%
디지털화폐				밀	722.00	-0.45%	+27.84%
비트코인	79,084.76	+2.28%	-9.77%	대두	1,304.25	+0.6%	+22.52%
이더리움	2,570.45	+2.32%	-13.68%	커피	290.50	+1.68%	-7.6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1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